

한반도 항로표지의 기원과 발전

2) 본론

2. 국가별 한반도 해안지형 인식

최초의 수심측량 : 1787년 프랑스의 태평양 탐사 계획, 울릉도 주위의 위치를 측정하고 해도에 기록

영국 : 1787~1876 남해안, 1866 강화도 인근 해역, 1876~1877 서해 남부 디도리, 1882~1884 서해 중부 연안

프랑스 : 1787~1876 서해안 중부, 1856년 영흥만~서해안, 1866년 한강(경기만, 장안사)

러시아 : 1787~1876 동한만, 1877~1910 동해안 북부

미국 : 1787~1876 대동강 하구

일본 : 1877~1910 한반도 근해를 측량, 개항장 확보, 청일전쟁과 러일전쟁 대비, 식민지정책과 대륙 침공

6

한반도 항로표지의 기원과 발전

2) 본론

3. 1903년 이전 부산, 인천, 원산, 거문도 항로표지

나) 서해 항로표지

· 인천 내항의 항로표지

- 1892년 내항에는 영국영사관(英領事館) 근방에 삼각일표(三角立標) 2개와 사도(沙島)의 사각일표(方形立標) 2개가 있었으며 영국 배가 이를 본표(本標)로 하여 내항에 신속히 들어왔다.
- 1893년(明治二六年) 영국인 토목기사 "벤버스" (인원항 항만시설 설계 및 감독)가 설계한 표지 2기를 팔미도 서단, 소월미도 동단에 설치하고 또한 사도(沙島)와 영국 영사관 산 위 두 군데에 목표(木標) 2기를 설치하였다. 이는 인천항의 위쪽(강화도와 한강 방면)의 항로표지로서 최초의 것이며 해관에서 관리하였다.
- 인천항 내항을 위한 항로표지의 건립 주체는 영국으로 추정된다. 1882~1884년에 Flying Fish호는 격렬비열도, 위도, 안미도, 백령도, 대청군도에 이르기까지 서해 중부 연안에 수로를 측량하여 FLYING FISH CHANNEL(펄 반도수도), Prince Inlet(펄 울포안) 등의 지명을 명명하였다.

9

한반도 항로표지의 기원과 발전

2) 본론

3. 1903년 이전 부산, 인천, 원산, 거문도 항로표지

가) 남해 항로표지

- 초량항 항로표지, 부산의 항로표지 시설의 운영에 관한 기록



- 거문도의 항로표지 시설의 운영에 관한 기록
 - 1885년 3월 1일부터 1887년 2월 5일까지 영국이 거문도를 불법 점령할 당시 알은 어윤은 영국이 부산항 굽은 부표를 돌려 있었으며 사도 섬의 동쪽 해안은 2개의 점이 석회로 채색하여 항로표지 역할을 함.

7

한반도 항로표지의 기원과 발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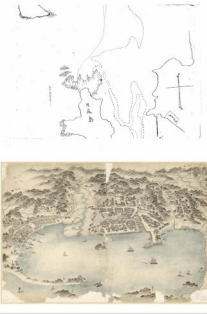
2) 본론

3. 1903년 이전 부산, 인천, 원산, 거문도 항로표지

나) 서해 항로표지

· 항로표지

- **벨미도 항로표지**는 인턴해관경(W.W.C Osborne)이 항관을 오르내려 인턴 항에 출입하는 중방 항로를 형성하기 위해 세운 표지이다. 이 표지는 화강석으로 축조하여 암초 위 높이 약 26ft(26英尺) 밑면은 20ft·15ft로 하였으며 장변 20ft(20英尺)은 조류 간만의 방향에 따라 폭 3척(3尺)(R)이다. 흑색의 피선으로 칠하여 암석 위 물의 깊이를 파악할 수 있었다. 그 위에 직경 2촌(寸) 길이 10ft(英尺)의 철봉을 세우고 막대 위에는 직경 4인치(英寸)의 붉은색 바구니를 달았다. (1895년 12월 보고 문서)
- 동해 항로표지
 - 1893년 4월 16일 러시아 전함인 영흥 지방 암초에 좌초되어 등대 건설을 요청하였으나 원산 세무사가 산주들에게 문의하여 등대가 필요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하여 최소 1893년까지는 영흥 지방에 등대를 건설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된다.
 - 러시아 민이 동해의 측량을 활발히 하였으며 항로표지의 건설도 적극적으로 요구하였지만, 시구 일감의 견제로 항로표지의 건설이 늦어진 것으로 생각할 수 있다. 이에 의하면 단순히 항로표지의 발달이 지형에 의한 것이 아니라, 각국의 세력을 기반으로 하였다는 것을 근거로 할 수 있다.



10

한반도 항로표지의 기원과 발전

2) 본론

3. 1903년 이전 부산, 인천, 원산, 거문도 항로표지

나) 서해 항로표지

· 암초 표지

- 인턴해관경(J. D. Johnson)은 1887년 9월부터 1889년까지 인천항 입출항 선박의 안전항로를 위한 일표 3개를 세웠다.
- **소월미도일표(조계일표(潮計立標))**는 1887년 9월 30일에 소월미도의 남단 암초 상에 세운 석조원형일표(石造圓形立標)로 높이가 7.5m의 원통형 형상으로 홍색과 백색의 폭 0.9m(3尺)의 기로수로 칠하였다. 이후, 1902년 7월 1일 풍파에 파손되어 재차 개축한 후 1905년(光武九年) 12월 이를 증축하여 높이 10.3m(34尺4寸)에 달하였다.
- **백암일표(白岩立標)**는 1889년 1월 2일에 백암에 세운 일표는 지름 1.8m(6尺), 높이 11m(36尺)의 삼각 다리의 형상에 검은 색으로 칠하였다. 이는 휴먼뎀(ヒューマン岬)과 영흥도(靈興島)의 중앙에 있는 높이 10척(尺)의 바위에 건립되었다. 일본은 1894년 수로지에 영흥도(靈興島)를 소부도(小部島)로 기록하고 있으며, 1899년이 되어서야 그 명칭을 영흥도(靈興島)로 기록하고 있다. 한편, 프랑스는 1787~1876년 사이에 작성한 해도에 Bale Younghing(영흥만)을 표기하고 있으며 휴먼뎀(ヒューマン岬)도 프랑스 해도 작성의 영향을 받은 것으로 추정된다. 따라서 **백암 항로표지의 건설은 프랑스의 해도 작성을 기반으로 시구 일감의 요청에 건립된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 **북장자서일표(北長子嶼立標)**는 1894년 수로지에는 왓차(ワッチャー-WATCHA)로 기록하고 있으며 1899년 수로지에는 북장자서일표(北長子嶼立標)로 기록하고 있다. 북장자서일표(北長子嶼立標)는 북장자서 바위에 건립된 높이 35척(尺)의 석조원형(石造圓形)일표로 흑백색방격(黑白方格)을 칠했다.

8

한반도 항로표지의 기원과 발전

3) 결론

- 본 연구를 통해 항로표지의 기원은 1903년 이전으로 알 수 있었다.
- 1787년(조선정조 11년) 프랑스의 태평양 탐사계획에 의해 라페루즈(La Perouse) 함장과 그 일행은 라페루즈(La Perouse)호와 Boussolle로, Astrolabe로 이끌고 울릉도 주위의 위치를 측정하고 수심을 측량하고 해도에 기록하였는데 이것이 우리나라 근해에 대한 최초의 수심측량으로 추정되며 이를 통해 국제적인 항로표지의 설치가 시작되었다.
- 또한, 국가별 목적에 의한 한반도 해양지형의 공간적 인식이 따라 등대 설치가 활발하게 이루어졌다.
- 특히, 본 연구를 통하여 초량항, 인천항에 설치되었던 항로표지의 시기를 명확히 하였으며, 그 동안 논의 되지 않았던 거문도의 항로표지 시설을 파악할 수 있었다. 또한 동해의 항로표지 건설이 늦어진 이유가 남서해에 산재하였던 암초의 영향 뿐만 아니라, 각국의 목적과 영향력에 따라 달라졌음을 확인할 수 있다.

즉, 본 연구를 통해 국가별 해양지형의 공간적 인식을 분석하여 일본의 식민지 정책 중심에 따라 건설된 한반도 등대에서 벗어나, 유럽 및 아시아의 지역 관계에 속의 한반도 등대를 살펴볼 수 있었다.

11